

한·중 경제관계 20년: 회고와 향후 과제

최필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Tel: 3460-1022)

노수연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박민숙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전문연구원 (mspark@kiep.go.kr, Tel: 3460-1145)

차 례 ●●●

1. 배경
2. 부문별 현황: 무역 / 투자 / 금융·통화 / 산업
3. 향후 과제: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 대중 투자의 신(新)모멘텀 창출 / 한·중 FTA 체결 /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주요 내용 ●●●

- ▶ 한·중 양국간 교역은 제1성장기(1992~97년), 조정기(1998~2001년), 제2성장기(2002~05년), 안정화기(2006년~현재) 4단계를 거치며 규모가 커졌으나,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여전히 가공무역 비중이 커 중국 내수시장 접근에 한계가 있음.
 - 대중(對中)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1970년대 미(美)·일(日)의 비중이 70%를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 상황은 무역 파트너가 다원화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함.
 - 한국의 대중 교역은 투자의존형 수출구조로 대중 투자와 깊이 연계돼 있으나, 최근 대중 한국기업의 현지조달이 강화됨에 따라 투자에 의한 수출 유발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1년 현재 9.6%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시장 점유율은 6.3%로 일본(11.3%), 미국(9.1%), 독일(7.5%, 2010년)보다 낮음.
- ▶ 한국의 대중 투자는 탐색기(1989~91년), 진입기(1992~97년), 조정기(1998~2001년), 성장기(2002~08년), 전환기(2009년~현재)를 거쳐 투자의 목적과 업종, 지역 다원화가 이뤄졌으나 최근 줄어들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는 저임금 임가공에서 내수시장 진출로 그 목적이 전환되어 왔으며 투자 업종은 초기의 경공업에서 점차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초기 대중 투자는 동북 3성(東北三省)과 산둥성(山東省)에 집중됐으나 2000년대 들어 화동지역과 화북지역으로 확대됐고, 최근에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함.
 - 최근의 투자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 확대와 더불어 △ 아직 임가공업을 필요로 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기존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 한국공업단지 등을 새로 설립하여 활용하거나 △ 투자 아이টে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 향후 한·중 양국은 FTA 체결과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을 통해 상생의 협력 패러다임을 창출해야 함.
 -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인하와 서비스 진입장벽 극복은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에 커다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
 - 금융·통화 부문에서 한·중 협력은 아직 실물 부문의 교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향후 위안화의 국제적 사용이 확대되고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협력 여지가 커질 것임.
 - 한국의 17개 미래 성장동력산업과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7대 육성 분야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상호 비교우위가 엇갈리는 차세대 IT·그린카 등의 영역과 세계시장에서 양국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에너지절약·환경보호·바이오·신에너지·신소재 등의 영역에서 맞춤형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함.
 - 중국은 에코시티·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화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도 증가하고 있음.

1. 배경

가. 중국의 중요성

■ [시장]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임.

- 중국은 2004년부터 한국 최대의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한국 수출의 30% 이상은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함.
- 중국은 나날이 부유해지는 많은 인구와 그에 필적하는 방대한 계층적·지역적 미개척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임.
- 중국의 서비스 시장은 아직 제도적·실질적으로 개방될 여지가 많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음.

■ [생산 네트워크] 한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수입의 절반 이상이 부품·소재인데, 이는 양국이 단순히 서로의 제품만을 소비하는 사이가 아니라 대체하기 훨씬 어려운 기술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산업 파트너임을 말해줌.
- 한국의 대중국 교역은 단순히 양국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전 세계적 생산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거시경제의 영향] 한국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거시경제 변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2000년 닷컴(dot-com) 거품 붕괴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구미(歐美)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한국은 중국의 경기부양에 따라 비교적 무난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음.
- 한국의 가장 큰 대외적 리스크는 구미가 아닌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봐야 하며, 이에 따라 중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욱 중요해짐.

나. 한·중 경제협력 환경 변화

■ [중국의 내생적 변화] 중국이 내수 주도형 성장으로의 전환을 표명하고, 과거 10% 내외의 고속성장에서 7% 대의 중속(中速) 성장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한국의 대중 경제협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해짐.

- 한·중 교역이 가공무역 위주로 이뤄지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 접근에 한계가 드러남.
- 인건비 상승, 위안화 절상, 가공무역 규제 강화 등으로 더 이상 중국을 수출을 목적으로 한 제조기지로서만 활용할 수 없게 됨.

■ [재중 한국기업 경영활동의 변화] 그동안 한국은 투자주도형 대중 무역구조를 영위해 왔으나 재중 한국기업들의

원부자재 현지 조달 확대에 따라 대중 투자의 수출유발 효과도 줄어들고 있음.

- 한국의 대중 투자액 자체도 최근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 경쟁구도의 변화] 중국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중 간 분업관계가 점차 경쟁관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한국 대중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서 지금과 같은 대중 흑자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중국정부의 신산업(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에서의 경쟁도 심화될 것이므로 동일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함.
- 해외건설 시장이나 에너지·자원 개발 시장에서의 한·중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음.

2. 부문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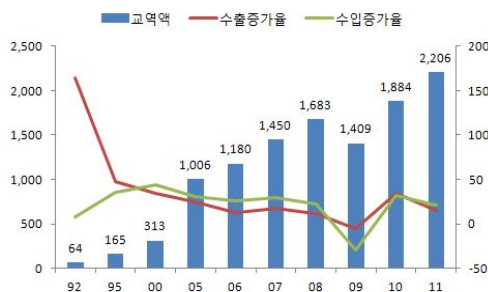
가. 무역

1) 한·중 교역 현황

- 한·중 교역액은 1992년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11년 2,206억 달러(35배 증가)로 증가했으며, 2004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함(그림 1 참고).
- 2011년 수출액은 1,342억 달러, 수입액은 864억 달러로 1992년에 비해 각각 51배와 23배 증가함.
- 1992~11년 한국의 연평균 대중 수출증가율은 23%였으며, 같은 기간 대(對)세계 증가율(11.0%)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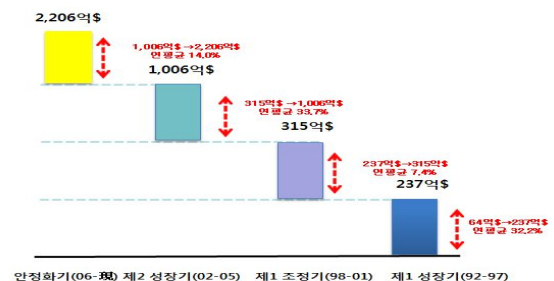
그림 1. 한·중 무역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그림 2. 한·중 교역 발전단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양국간 교역은 △ 제1성장기(1992~97년) △ 조정기(1998~2001년) △ 제2성장기(2002~05년) △ 안정화기(2006년~현재) 4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옴(그림 2 참고).

- ① 제1성장기(1992~97년): 1992년 9월 한·중 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간접교역이 직접교역으로 바뀌면서 교역이 급증함.
 - 양국의 교역액은 1992년 64억 달러에서 1997년 237억 달러로 연평균 32.2% 증가함.
 - 또한 한국기업들은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을 가공무역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함.
- ② 조정기(1998~2001년): 한국의 외환위기 및 중국의 경기불황으로 양국간 교역이 소강상태를 맞은 시기임.
 - 양국간 교역은 1997년 237억 달러에서 2001년 31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둔화됨.
 - 단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대중 무역의존도가 꾸준히 상승해 대외교역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증가된 시기임.
 - 대중 무역의존도: 1998년 8.2%, 1999년 8.6%, 2000년 9.4%, 2001년 10.8%.
- ③ 제2성장기(2002~05년): 대중 교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로 2005년 교역규모는 1,000억 달러를 돌파함.
 - 2003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 되었으며, 교역구조도 하이테크 산업 중심으로 고도화가 이루어짐.
- ④ 안정화기(2006년~현재): 대중 교역 급등세가 둔화되고, 재중(在中) 한국기업의 수출유발효과가 감소됨.
 - 특히 중간재 산업에서 중국 내 생산이 확대되면서 수입대체가 이뤄지기 시작함.

2) 무역구조 평가

- 양국 교역은 수교 당시 섬유원료 · 광물성 원료 위주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전제품과 전자부품 교역이 확대됨.
- 한국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은 수교 당시 철강판·합성수지 등이었으나 2011년에는 평판디스플레이·반도체 등으로 변화됨(표 1 참고).

표 1. 한국의 대중 10대 수출품목(1992년 vs. 2011년)

(단위: 백만 달러)

10대 수출품목(1992)			10대 수출품목(2011)		
코드	품목명	금액	코드	품목명	금액
총계		2,654	총계		134,185
613	철강판	420	83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20,292
214	합성수지	299	831	반도체	15,777
612	선재봉강 및 철근	235	133	석유제품	10,995
331	가죽	141	214	합성수지	7,382
411	인조섬유	130	213	석유화학합성원료	4,540
434	인조장 섬유직물	98	742	자동차부품	4,401
252	종이제품	90	812	무선통신기기	4,277
721	섬유 및 화학기계	76	212	석유화학중간원료	3,806
133	석유제품	74	613	철강판	3,671
219	기타석유화학제품	69	211	기초유분	3,240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현재 한·중 무역은 한국이 중국에 부품과 자본재를 제공하고, 이를 중국에서 조립·가공한 후 수출하는 보완적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역구조가 고착화됨에 따른 위험도 노정되고 있음.

- 대중 수출은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한국 내 모기업이 부품과 자본재를 제공하고, 이를 중국에서 조립·가공하여 수출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2011년 한국의 대중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은 49.1%에 달함.
- 그러나 중국이 가공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교역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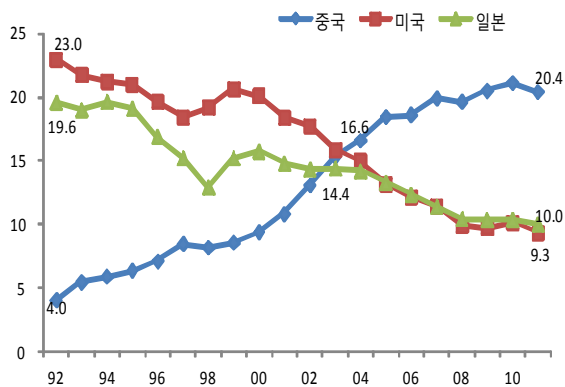
3) 대중 교역 현안과제

■ 한·중 수교 이후 대중 무역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이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님.

- 한국 전체 교역에서 대중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4.0%로 주요 교역국인 미국(23.0%)과 일본(19.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15.3%로 일본(14.4%)을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16.6%로 미국(15.0%)을 넘어섬(그림 3 참고).
- 지금까지는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1970년대 한국의 수출 중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70%가 넘는 등 오히려 더 심한 의존도를 경험했음.
-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점이 문제이며, 이는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수출을 늘이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함.
 -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품목인 중간재 수출도 감소함.

그림 3. 한국의 주요국에 대한 무역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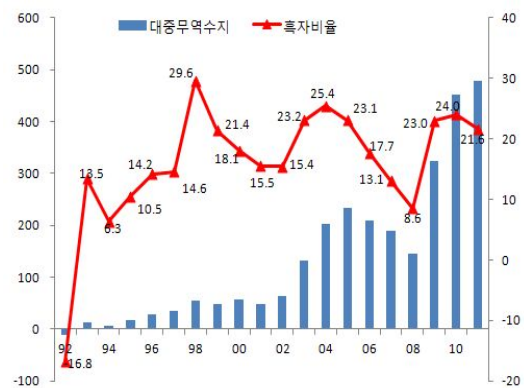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그림 4. 한·중 무역흑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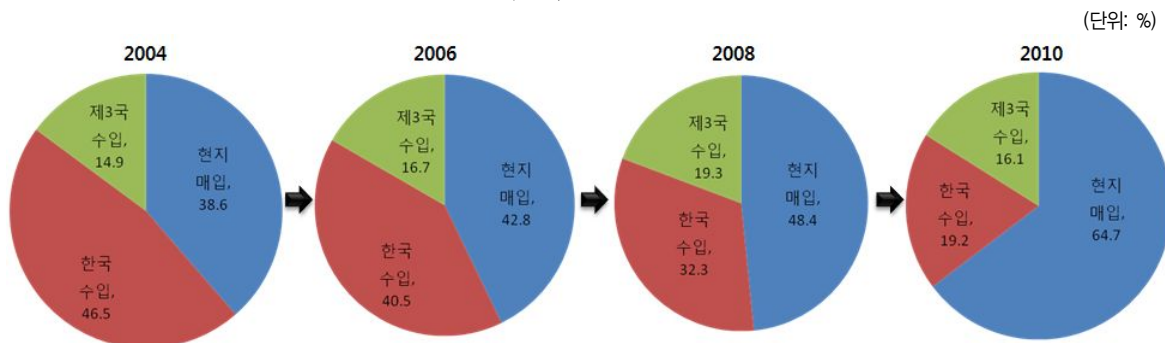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구조적으로 한국이 중간재에서 흑자를, 일차상품 및 소비재에서 적자를 보고 있음.

- 한국은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이후 19년간 대중 무역흑자를 시현했으며, 2004년부터 흑자 비율이 감소하다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대중 수입이 급감하면서 흑자율이 다시 확대됨(그림 4 참고).
- 한국의 대중 흑자는 중국이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국 경제 운용상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11년 기준 한국의 대중 무역흑자 478억 달러 중 428억 달러가 중간재에서, 138억 달러가 자본재에서 기인했으며, 일차상품 및 소비재에서는 각각 20억 달러와 6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대중 교역은 투자의존형 수출구조로 대중 투자와 깊이 연계되어 확대되어 왔으나, 재중 한국기업의 현지조달이 강화되면서 투자에 의한 수출유발효과가 줄어들고 있음.
 -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지법인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부품 및 반제품 비중이 46.5%였으나 2010년에 19.2%로 감소함(그림 5 참고).
 - 반면 현지조달 비중이 2004년 38.6%에서 2010년 64.7%로 늘어나면서 대중 투자의 수출유발효과가 2004년 2.29에서 2010년 1.29로 급감함.¹⁾

그림 5. 재중(在中) 한국기업의 매입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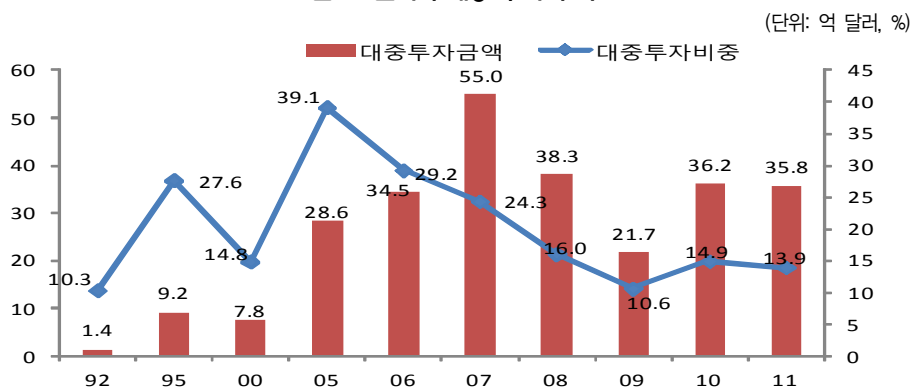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경영성과 분석』, 각 연도.

나. 투자

- 1988년부터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던 대중 투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크게 증가함.
 - 1992년 1억 4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한국의 대중 투자금액은 2011년 35억 8천만 달러로 약 25배 성장하여 규모 면에서 미국에 이어 2위로 부상함(그림 6 참고).
 - 2011년 말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잔액은 368억 달러(22,551건)로 한국 전체 해외투자액의 19.1%를 차지함.

그림 6. 한국의 대중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직접투자 경영성과분석』, 각 연도 참고.

1) 대중 투자의 특징

■ 한국의 대중 투자는 탐색기(1989~91), 진입기(1992~97), 조정기(1998~2001), 성장기(2002~08), 전환기(2009~현재)의 다섯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 옴(그림 7 참고).

- ① 탐색기(1989~91년): 우리 기업이 홍콩으로 우회하여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시기임.
 - 주요 투자업종은 농산물 가공, 의류, 가죽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으로, 투자금액은 6,725만 달러(105건)에 달함.
- ② 진입기(1992~97년): 한·중 수교 이후 대중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기임.
 -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무역형 투자가 증가함.
 - 투자업종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시기로 부동산, 요식업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함.
 - 단순조립가공의 저위기술 제품에서 가전 등 전기전자 분야로 다양화되기 시작함.
- ③ 조정기(1998~2001년): 외환위기의 여파로 한국의 해외투자가 감소한 시기로, 대중 투자액은 24억 7천만 달러(2,619건)에 그침.
 - 한국 내 경기불안과 경영애로를 겪은 중소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하던 시기임.
 - 이 시기 중국은 선별적 외국인 투자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서부대개발 전략 등을 통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우대하기 시작함.
- ④ 성장기(2002~08년): 중국의 WTO 가입과 함께 내수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는 투자가 증가한 시기임.
 - 2008년 신(新)소득세법 시행으로 외자기업의 세제상 혜택이 사실상 폐지되고, 선별적 외자 유치정책이 강화됨.
 - 이 시기 대중 투자액은 210억 2천만 달러(13,706건)에 달하며, 2004년의 경우 한국은 실질적으로 세계 최대 대중 중국 FDI 시행국이 되기도 함.
- ⑤ 전환기(2009년~현재):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대중 투자구조가 전환되고 투자 금액도 감소함.
 - 중국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변화로 한국의 저임금 활용형 투자가 감소하고,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증가했으나 성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임.
 - 한국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은 수출 규모에 비해 기타 국가들보다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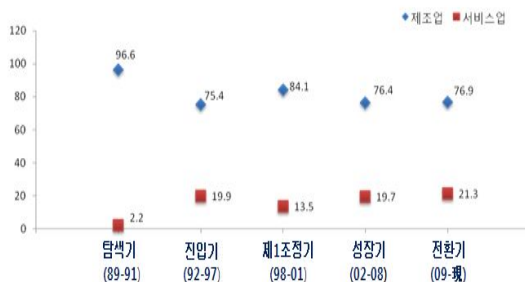
2) 투자구조 변화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목적·업종·지역·주체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겪음.
- **[목적]** 먼저 한국의 대중 투자목적이 중국의 저임금 활용에서 내수시장 개척으로 바뀜.
 - **[업종]** 투자업종은 초기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점차 IT·가전·석유화학·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그림 8 참고).

그림 7. 한국 대중 투자의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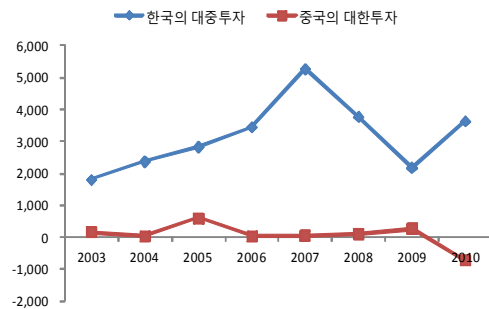
탐색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일본 등을 경유한 우회 투자로 시작
1989-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中 투자업종: 농산물 가공, 의류, 가죽 및 피혁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위주 • 對中 투자금액: 6,725만\$(105건)
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8월 수교, '92.9월 한중 투자 보장협정 체결, 임가공형 투자 (중국 저임노동력 활용)
1992-1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中 투자업종: 단순조립에서 전기분야로 업종 다변화, 비제조업(부동산, 요식업) 투자 증가 • 對中 투자금액: 38.7억\$(3,563건)
조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외환위기 영향→ 해외 투자 및 對中 투자 급감
1998-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선별적 외국인 투자정책 강화, 서부지역 투자우대정책 실시 • 對中 투자업종: 전자통신 업종 비중 ↑, 對中 투자금액: 24.7억\$(2,619건)
성장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WTO가입(2001년) 후 외자기업에 내수시장 개방→ 對中 투자대폭 증가
2002-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新소득세법('08.01)→ 외자기업의 세제상 혜택 폐지/ '04년 이후 가공무역 규제 조치 • 對中 투자금액: 210.2억\$(13,706건) • 對中 투자목적: 내수시장 개척형 증가, 저임금 활용·우회 수출형 투자 위축
전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
2009-現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투자의 성숙기 진입, 對中 투자구조 전환 중(내수 목적, 대기업 중심)→ 투자 규모 ↓ • 對中 투자금액: 93.7억\$(2,558건) / 對中 투자목적: 중국 현지시장 개척

그림 8. 대중 투자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그림 9. 양국의 상호 직접투자현황 추이
(백만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중국상무부

- **[지역]** 초기에는 동북 3성과 산둥성에 집중됐으나, 2000년대 들어 화동(華東)지역과 화북(華北)지역까지 확대됐고, 최근에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도 증가함.
- **[주체]** 초기에는 중소기업이 주도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대기업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짐.
- **[규모]** 건당 투자규모는 1992년 82만 달러에서 2011년 416억 달러로 5.1배 커짐.

3) 대중 투자 현안과제

■ 한국의 대중 투자에 비해 중국의 대한(對韓) 투자는 극히 미미함.

- 한국의 대중 투자는 2003~10년 누적액이 288억 달러에 달하나, 같은 기간 중국의 대한 투자 누적액은 5억 달러에 불과함(그림 9).
- 중국의 대한 투자가 부진한 주요 이유는 △ 한국의 투자유인 부족 △ 중국 자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들 수 있음(표 2 참고).

- 중국은 2000년 이후 해외투자정책(走出去)을 적극 실시하여 주로 자원개발, 기술도입, 브랜드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유인할 요인이 약함.
- 또한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자동차 매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중국 자본에 대한 불신이 큼.

표 2. 중국의 주요 대한국 투자 실패사례

투자자	기업명	신고금액	비고
경동방하이텍	하이디스(LCD)	1.5억 달러(2002년)	2006년 9월 법정관리 신청
상하이자동차	쌍용자동차	5.6억 달러(2004년)	2009년 1월 법정관리 신청
SINOCHEM	인천정유	5.5억 달러(2004년)	계약불발, 자금회수
DONGTAI HUAAN	한·중 미래도시	3억 달러(2008년)	2007년 3억 달러 신고, 1억 2천만 달러 도착

자료: 정도숙(2012), 『중국의 해외투자현황과 중국 투자유치 확대 방안』, KIEP-AMR 세미나 자료 참고.

다. 금융·통화

1) 은행·보험·증권

- 금융부문에서 한·중 협력은 중국의 금융부문 개방과 궤를 같이하여 진행돼 왔으며 아직 실물부문의 교류 수준에 비해 미약함.
 - 국내 은행의 최초 중국 진출은 1992년 외환은행의 베이징 대표처 설립이었으며, 수교 이후 많은 은행들이 베이징과 톈진 등지에 지점을 설립했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많은 지점들이 통폐합되거나 철수함.
 - 은행업에서 본격적인 진출은 2006년 말 중국이 WTO 가입조건 이행의 일환으로 외국계 은행에 대한 위안화 업무 취급을 개방하면서 이루어짐.
 - 보험업도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시 생명보험사 합작비율을 50%까지 허용하고, 2003년 100% 출자 손해 보험사 설립을 허용하면서 한국계 기업의 진출이 시작됨.
 - 증권업은 2006년 말까지 외국계 합작증권사와 합작자산운용사의 지분을 49%까지만 허용해 한국업체의 진출이 부진한 상태임.
 - 중국정부가 외국계 증권 투자를 선별하여 수용하는 QFII²⁾ 제도를 활용하여 한국계 기관 및 업체의 진출이 나타나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 등 공공 금융기관이 총 6억 달러 규모의 QFII 자격을 취득했으며 이에 앞서 10여개 민간 금융회사들도 12억 4,500만 달러 규모의 QFII를 획득함(2012년 7월 현재 총 15개).
- 현재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한국계 금융기관은 은행 5개, 보험사 4개이며, 증권업계는 대표사무소를 통한 자문업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표 3 참고).
 - 한편 한국에 지점을 설립한 중국계 은행은 5개이며, 2개의 증권사가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2) 적격외국인투자기관(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중국 A주(위안화 표기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외국투자기관.

표 3. 한·중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 현황

한→중	은행업	우리은행(2007. 11), 하나은행(2007. 12), 신한은행(2008. 5), 기업은행(2009. 6), 외환은행(2010. 5) 등 지점 30여개
	보험업	삼성생명(2005. 7), 삼성화재(2005. 6), LIG손해보험(2008. 6), 현대해상(2007. 3)
	증권업	대표사무소 10여개(QFII 기관 15개)
중→한	은행업	5개 은행 지점: 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
	증권업	대표사무소 2개: 초상증권, 신은만국증권

주: 1) 2012년 8월 현재 현황임.

2) () 안의 연도는 현지법인 설립 시기임.

자료: 각종 자료와 보도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양측의 금융기관들은 주로 자국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현지화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한국계 은행들은 중국에서 직불 카드나 파생상품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도 내고 있으나 수신 잔액이 크지 않고 인지도도 아직 낮으며, 보험이나 증권도 중국 본토 기업이나 기타 외국계 업체에 비해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지 못함.

2) 위안화 국제화와 통화협력

- 중국은 의욕적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인근 국가들과 정부간 통화 스왑 협정을 체결함.
 - 양국은 2008년 12월 1,800억 위안/38조 원의 상호 자국통화 스왑 협정을 맺었으며, 2011년 10월에 이를 두 배 (3,600억 위안/76조 원)로 확대함.
 - 이에 앞서 2002년 20억 달러의 달러 스왑 협정을 맺었으며, 2005년에 이를 50억 달러로 확대함.
- 중국은 2009년부터 무역 결제 시 위안화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실제 위안화 사용 비중은 최근 답보 상태이며, 한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도 아직까지 극히 미미한 상태임.
 - 중국의 위안화 결제액은 2011년 2/4분기 5,973억 위안을 기록한 이후 2012년 2/4분기(4,520억 위안)까지 그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안화 결제액도 2011년 말까지 최고수준이 수출 0.24%, 수입 0.07%에 불과함.
- 중국이 외환보유 다원화 및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인근 국가들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한국의 국채 보유량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QDII³⁾ 기관들을 중심으로 한국 자본시장에도 꾸준히 진출하고 있음.
 - 중국은 2009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매월 3,000억~4,000억 원을 꾸준히 매입하여 현재 10조 원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은행도 2012년 1월 중국에게 승인받은 채권 투자한도 200억 위안 중 일부를 이용하여 4월 중국 부채를 소규모 매입함.

3) 적격국내기관투자자(Qualified Domestic Institutional Investor): 외국 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중국 금융기관.

- 2012년 4월 현재 중국 QDII의 대한 투자금액은 4억 2천만 달러로 전체 QDII의 46%를 차지했으며, 국부펀드(CIC) 등을 통한 여타 자금도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한국 자본시장(주식·채권)으로의 중국 자금 순유입규모: 3,975억 원(2008년), 2조 6,741억 원(2009년), 5조 6,769억 원(2010년), 4조 8,703억 원(2011년).

라. 신산업

- 한국과 중국 정부는 각각 2008년과 2010년에 신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각종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음.
- 한국은 2008년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2009년 1월 미래 성장동력으로 17개 산업을 제시함(표 4 참고).
- 신성장동력 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 5월 VIP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총 2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17개 신성장 동력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함.⁴⁾

표 4.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분야	신성장동력	세부산업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 물처리	스마트 상수도, 친환경대체용수
	LED 응용	TV, 자동차용, LED 조명
	그린수송시스템	전기차 등 그린카, WISE SHIP
	첨단 그린도시	U-City, ITS, GIS 등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3DTV, IPTV 차세대융합네트워크
	IT 융합시스템	지능형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로봇 응용	산업용로봇, 지능형로봇, 서비스로봇
	신소재, 나노 융합	10대핵심소재, 나노융합소재
	바이오제약(자원),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장기, 바이오화학, 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기능성식품, 웰빙전통식품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u-health, 해외환자 유치 등
	글로벌 교육시스템	e-러닝 인프라, 외국인 유치교육 등
	녹색금융	녹색기업여신, 녹색산업펀드, 인프라조성펀드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게임, 가상현실 콘텐츠, SW 등
	MICE*, 관광	회의, 포상관광, 콘벤션, 국제행사 등

주: * Meeting, Incentive tour, Convention, Exhibition.

자료: 지식경제부(2009),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

- 중국은 2010년 10월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결정(國務院關於加快培育和發展戰略性新興產業的決定)」을 발표하여 7대 육성 분야를 확정함(표 5 참고).

4) 구체적으로는 녹색기술산업 79개 과제에 6조 7천억 원, 첨단융합산업 62개 과제에 12조 2천억 원, 고부가 서비스산업 59개 과제에 5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 목표는 2015년까지 GDP의 8%, 2020년까지 GDP의 15% 수준을 달성하는 것임.
- 2011년에 「전략적 신흥산업 국제화 발전 촉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고, 2012년 5월에 「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계획」을 통과시켜 12·5계획 기간(2011~15년)에 발전시킬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세부적인 기술을 명시하고 20대 중점 프로젝트를 발표함.
-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IC 산업정책», 「첨단기술 서비스업 지침», 「해양플랜트 산업 혁신발전전략», 「민영기업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장려 및 유도에 관한 실시 의견」 등 일련의 산업정책을 실시함.

표 5.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

전략적 신흥산업	세부 분야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고효율 에너지절약, 선진적인 환경보호, 자원의 순환이용과 관련된 핵심기술장비와 제품, 서비스
차세대 IT 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인터넷, 네트워크통합, 사물간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집적회로(IC), 신형 디스플레이, 첨단소프트웨어, 첨단서버 및 정보서비스
바이오산업	생물의약, 생물의약공정제품, 바이오농업, 바이오 제조
첨단장비제조업	항공장비, 위성 및 응용, 궤도교통장비, 지능형 제조장비
신에너지산업	차세대 원자력, 태양열 이용 및 태양광 발전, 풍력기술장비, 스마트 그리드, 바이오매스 에너지
신소재 산업	신형 기능성 소재와 선진적인 구조물 자재, 고성능 섬유 및 복합소재, 공통기초소재
그린카 산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기술

자료: 新華網(2011. 3),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

- 한·중 양국이 육성 중인 신산업은 모두 녹색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수 영역에서 상호 중복됨.
- 한국은 기존 주력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아 경제성장이 정체된 데 따른 위기의식에서 출발해 시장잠재력, 녹색성장과의 연관성 등을 기준으로 신성장동력을 제정했고, 중국은 자원의존형·환경파괴형 경제발전의 한계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을 강조한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표함.
 - 양국의 신산업은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분야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며(표 6 참고), 특히 태양광·풍력·IT 융합·바이오제약·그린수송시스템(전기차) 분야를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함.
 - 반면 한국의 신성장동력 산업은 헬스케어·교육·금융·콘텐츠·관광 등 고부가서비스 산업도 포함하고 있어 첨단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과 차별화됨.

표 6. 한국과 중국에서 중복되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

한국	공통 산업	중국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지열, 풍력, 해양에너지, 생물에너지	신에너지산업
탄소저감에너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시설 및 서비스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핵융합	신에너지산업
고도물처리	-	-
LED응용	-	-
그린수송 시스템	연료전지, 혼합연료, 수소, 태양열 자동차	그린카산업
첨단그린도시	-	-
방송통신융합	IPTV, 휴대전화·인터넷·TV 3대 네트워크 통합	차세대 IT 산업
IT융합	디스플레이, 셋톱박스, 반도체, 클라우드컴퓨팅	
로봇응용	-	

표 6. 계속

한국	공동 산업	중국
신소재, 나노융합	나노	신소재산업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바이오 제약, 농업	바이오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	-
글로벌 헬스케어	-	-
글로벌 교육서비스	-	-
녹색금융	-	-
콘텐츠, S/W	소프트웨어	차세대 IT 산업
MICE관광	-	-
	-	첨단장비제조산업

- 한·중 양국 정부는 2008년부터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옴.
 - 2008년 8월 공동성명을 통해 친환경적·자원절약형 사회 건설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할 것에 합의하고,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서는 에너지절약 협의체 운영과 정보교환, 공동 기술개발 등에 합의함.
 - 또한 첨단기술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첨단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정례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하고 향후 5년간 전자정보, 통신기술, 신에너지, 바이오·의약, 민간용 핵에너지 기술, 항공우주 등 분야별 협력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함.
 - 2012년 1월 10일 정상회담에서는 신에너지 분야의 협력 강화를 담은 합의문을 발표하고,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3. 향후 과제

가. 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

- 중국은 저임금과 저부가가치에 기초한 단순 임가공무역에서 내수 구매력 확대와 고부가가치에 기초한 일반무역으로 중심을 옮기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의 전환 속도는 경쟁국들보다 느림(표 7 참고).
 - 중국은 12차 5개년 계획에서 임가공무역에서 일반무역으로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실제로 중국의 일반무역 비중은 2007년 44.8%에서 2011년 52.8%까지 높아짐.
 - 한국의 일반무역 비중은 2007년 29.1%에서 2011년 34.4%로 2007~11년 5.3%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4.0%포인트, 미국은 14.9%포인트, 독일은 9.5%포인트(~2010년), 대만은 9.3%포인트 상승함.
-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11년 현재 9.6%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내수시장에서 점유율은 6.3%로 일본(11.3%), 미국(9.1), 독일(7.5%, 2010년)보다 낮음.

표 7. 주요국의 중국 내수시장 점유율

(단위: %)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A	B	C	A	B	C	A	B	C	A	B	C	A	B	C
중국 전체	100	44.8	100	100	50.6	100	100	53.4	100	100	55.8	100	100	52.8	100
일본	14.0	37.7	11.8	13.3	41.3	10.9	13.1	47.9	11.8	12.8	50.6	11.6	11.5	51.7	11.3
한국	10.9	29.1	7.1	9.9	31.4	6.1	10.2	33.7	6.4	10.0	32.7	5.9	9.6	34.4	6.3
대만	10.6	18.1	4.3	9.1	19.5	3.5	8.6	23.3	3.8	8.4	25.3	3.8	7.4	27.4	3.8
미국	7.3	51.8	8.4	7.2	57.7	8.2	7.7	64.8	9.3	7.4	62.5	8.3	7.2	66.7	9.1
독일	4.7	68.4	7.2	4.9	67.8	6.6	5.6	74.5	7.8	5.4	77.9	7.5	-	-	-

주: A는 수입시장 점유율, B는 일반무역비중, C는 내수용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이승신 외(2011), 『대중국 경제협력 및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11-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내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 한국제품의 유통 채널 확보를 위해 한국계 유통 서비스업의 진출을 도모하고, △ 중국인의 소비 구조 변화에 따라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급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접근 전략을 수립하며 △ 한·중 FTA를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나. 대중 투자의 신(新) 모멘텀 창출

- 한국의 대중 투자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원인은 △ 한국기업이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경영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 기존 업종의 투자가 포화상태에 이른 반면, 새로운 투자 분야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경영환경]** 재중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 등 비용상승과 노무관리에서 경영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 2011년 KOTRA의 그랜드서비스 경영환경 조사결과에서는 12.7%만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반면, 55.8%는 악화됐다고 응답함.
 - 특히 인건비 등 비용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79.5%에 달했으며, 노무관리(43.5%)와 세무환경(17.1%)이 그 뒤를 이음.
 - **[투자포화]** 자동차·전자·반도체·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요 산업은 2000년대 중반까지 거의 모두 중국에 생산기지 설립을 완료함.
 - **[경영실적]** 평균 당기순이익률로 본 재중 한국기업의 경영실적은 2003년 5.6%를 기록한 이래 최근 들어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적자기업의 비중도 50%에 이름.
- 이에 따라 내수시장 개척형의 새로운 재중 성장동력 산업을 찾는 한편,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대중 투자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함.
 -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내수시장 개척형 투자는 한국의 대중 무역구조 개선과도 직결되는 문제임.
 - 그러나 단시일 내에 내수시장 개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 한국의 경쟁력을 살려서 임가공업을 필요로 하는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기존 제조기지를 이전하거나 △ 한국기업단지 등을 새로 설립하여 활용하거나 △ 투자 아 이템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 중국정부는 허난(河南), 후난(湖南),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등지에 9개 가공무역산업 이전기지를 구축하겠다

고 밝히는 등 내륙으로의 산업기지 이전에 적극적임.

- 산둥(山東)과 충칭(重慶) 등지에 설립된 한국공업원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 설립하는 것도 한국의 경쟁력을 살리는 자연스러운 전략임.
- 아이템과 기술이 있으나 독자(獨資)로 대중 투자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다. 한·중 FTA 체결

■ 한·중 FTA를 통한 관세 인하와 서비스 진입장벽 극복은 중국의 내수시장(상품 및 서비스 시장) 선점에 커다란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음.

- 중국은 아직 자동차와 전자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본격적인 산업국가와 FTA를 체결한 적이 없으며, 한국과의 FTA 체결을 더 높은 수준의 경제개방을 위한 일종의 시금석으로 보고 있음.
- 이미 중국이 대만과 ECFA를, 홍콩과 CEP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의 상품·서비스 시장 분야에서 대만과 홍콩이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함.

■ 현재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EAFTA(East Asia FTA), TPP(Trans-Pacific Partnership) 등 좀 더 포괄적인 경제통합 기제들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한국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향후 다자간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한·중 FTA는 포괄적이고도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하나, 국내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관세인하 효과로 개방수준에 따라 발효 후 5년 안에 0.77~1.25%, 10년 안에 1.82~3.04%의 실질 GDP 증가가 예상되며, 이보다 더 큰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효과까지 고려하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큼⁵⁾
- 그러나 25개 주요 농산품의 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중국이 우위에 있는 품목이 20개인 반면 한국은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한·중 FTA에 따른 한국 측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산물에 대한 보호에도 역점을 두어야 함⁶⁾

라.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

■ [신산업] 한·중 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산업을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신산업 정책의 방향성도 유사하므로, 각자 다른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쟁우위를 활용해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음.

5) 김영귀(2012. 2), 「한·중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중 FTA 공청회.

6) 어명근(2011. 7. 14), 「한·중 FTA 농업부문의 추진 방향」, KIEP 정책세미나.

- 차세대 IT, 그린카 등의 영역에서 한국은 기술, 산업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경쟁력이 있고, 중국은 시장, 인력, 정책 환경에 경쟁력이 있음.
- 이러한 분야에서 양국은 공동으로 △ 산·학·연 전략적 제휴를 결성하고 △ 국제기술표준을 제정하며 △ 공동개발 제품을 정부조달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등 협력방안을 추진할 수 있음.
- 또한 양국이 모두 비교열위에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공동 표준 제정 등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절약·환경보호·바이오·신에너지·신소재 등의 영역에서 한·중 양국은 전반적으로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을 유럽과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글로벌 분업구조에서 중간 혹은 중저(中低) 단계에 처해 있음.
- 따라서 한·중 양국이 연합하여 유럽, 미국의 기술이전을 수용하고, 국제시장 경쟁과 기술특허표준 제정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도 있음.
- 향후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헬스케어·교육·콘텐츠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공동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음.

■ **[금융]** 위안화의 국제화, 한·중 FTA 체결 등으로 협력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금융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시장을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은행업에서는 △ 상호 통화를 이용한 신용장 발행 및 송금 취급 △ PB 업무 확대 △ 모바일 뱅킹 확대 등이, 증권업에서는 △ IB 업무 개척 △ QDII의 대한 투자 △ 합자증권사 설립 △ 중국기업의 한국증시 상장 등이, 보험업에서는 △ 단체보험과 건강보험 시장 진출 △ 자동차보험의 대외 확대에 따른 대비 등이, 자산운용업에서는 △ 공모주식투자펀드 운용 △ PE 및 부동산자산운용 등이 유망 분야로 꼽힘.⁷⁾

■ **[도시개발]** 중국은 에코시티·스마트시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도시화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 진출 기회도 커지고 있음.

- 최근 중국에서는 매년 2천만 명이 넘는 신규 도시인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뿐 아니라 IT·환경·유통·의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이미 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쿠로가와 정동신구(鄭東新區) 설계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음.⁸⁾ KIEP

7) 이창영(2011), 「한·중 FTA 금융서비스부문 경쟁력 비교 및 진출유망 분야」, 『중국자본시장연구』, 중국자본시장연구회.

8) 정지현 외(2012, 근간),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사례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